

# 선인들의 삶과 의식을 대변하는 흥미로운 문제작

글\_ 김준형

1717~1724년 사이에 수촌<sup>水村</sup> 임방(任昉: 1640~1724)은 특이한 책 한 권을 낸다. 제목은 '천예록<sup>天倪錄</sup>'이라 붙였다. '천예<sup>天倪</sup>'는 '시비를 초월한 자연적인 구분'을 뜻하는 말로, 《장자》에 나온다. 임방은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설령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그저 '저기'에 실재하는 일이라고 이해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천예록》은 조선조 지식인들도 비교적 많이 읽었던 책이다. 임방의 친구인 홍만종(1643~1725)은 물론이고, 이규상(1727~1799), 심능숙(1782~1840)과 같은 후대의 인물들도 이 책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게일 James S. Gale은 《천예록》에 수록된 이야기 중에 37편을 뽑아 1913년 뉴욕에서 《한국의 옛이야기 Korean Folk Tales》라는 책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오늘날의 국문학·중문학 연구자들 역시 《천예록》을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했다. 그만큼 《천예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문제적이며 흥미로운 책이다.

당대 세계관, 문화적 환경 등을 한 편의 회화로 펼쳐

정환국 선생이 이번에 《천예록》을 교감하여 번역하였다. 《천예록》이본은 7,8종 정도 있지만, 그 중 역자는 비교적 비중 있는 이본 4종을 중심에 두고 교감하였다. 4종은 일본 천리대본 《천예록》, 김영복본 《천예록》, 미국 버클리대본 《해동이적<sup>海東異蹟</sup>》, 천리대본 《어우야담<sup>於于野談</sup>》이다. 그 결과 역자는 62편의 이야기를 임방이 애초에 엮은 이야기로 선정하여 번역하였다. 《교감·역주 천예록》이 그것이다. 이 책은 역자도 언급하고 있듯이 국문학 연구자를 비롯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이 책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책이 일반인에게 널리 읽힐 수 있음은 전적으로 역자의 세련된 번역 감각에서 비롯된다. 동일한 단어를 번역할 때에도 역자는 당시의 상황과 처지까지 고려한 적절한 어휘를 사용한다. 이 점은 단순한 번역에 그치지 않고 17,18세기를 살았을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문화적인 환경까지 독자에게 보여주고자 한 역자의 세심한 배려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솔한 그림들을 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이 책이 일차적으로 전문가를 염두에 두었다는



《교감역주 천예록》

임방 지음 | 정환국 옮김 | 성균관대학교출판국 | 520쪽 | 값 30,000원

《조선의 신선과 귀신 이야기》

임방 지음 | 정환국 옮김 | 성균관대학교출판국 | 328쪽 | 값 12,000원

● 이 글을 쓴 김준형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문학박사)하였고, 고려대 초빙교수, 연세대학교 Post-Doc(박사 후 연구원) 역임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국문과 강사로 재직중이다.

점을 고려하면, 이 책은 일정한 한계를 갖기도 한다. 그 한계는 두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책에서 다룬 이야기가 62편에 한정되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천예록》의 성격 중 한 면만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 책에서 다룬 이야기는 62편이다. 그런데 원 《천예록》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실제 흥만종이 편찬한 《고금소총古今笑叢》에는 《천예록》에서 발췌했다고 밝힌 이야기가 8편이 있다. 이 중 4편은 62편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4편은 다른 이본에서는 볼 수 없던 이야기다. 그런데 새로운 4편의 이야기는 소화笑話다. 이에 역자는 《천예록》의 성격과 배치되는 이 4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출간하였다면, 이 4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책에서 다루어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책이 갖는 다른 한계는 《천예록》을 한 면만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천예록》에는 17,18세기를 살다간 사람들의 세계관이 잘 그려져 있다. 당시를 살다간 사람들의 세태도 그려져 있고, 애뜻한 사랑 이야기도 있다. 귀신·신선·도사·이인 등이 출현하는 비일상적인 내용도 있다. 그런데 역자는 《천예록》에 '조선시대 민간에 떠도는 기이한 이야기'를 부제로 붙인다. 《천예록》을 바라보는 역자의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 엿볼 수 있다. 물론 역자는 《천예록》이 야담을 다루는 자리에서 일원적인 시각에 따라 해석되는 방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러한 시각을 드러냈는지도 모른다. 실제 역자는 《천예록》이 찬집된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는 포송령 蒲松齡(1640~1715)의 《요재지이聊齋志異》가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신이神異'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이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흥미롭다. 하지만 여전히 《천예록》에는 전대의 이야기에 근간을 둔 이야기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보다 중립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 이야기 선별 기준의 불명확성은 이쉽지만 대중화 시도는 참신

정환국 선생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천예록》만 출간한 것이 아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책도 출간했다. 《조선의 신선과 귀신 이야기》가 그것이다. 이 책은 《교감·역주 천예록》에 수록한 62편 중 재미난 이야기 28편을 발췌하고,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종류의 사진과 그림도 붙여 넣었다. 일반인들에게는 무거운

주제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조선의 신선과 귀신 이야기》는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 출품된 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서 번역 출간이 기획되어 있다. 게일Gale이 미국에 《천예록》을 소개한 이후 한 세기가 지나 비로소 《천예록》은 유럽 인들도 읽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원문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에 일정한 변화를 주었다. 임방이 이야기를 취재하게 된 언술은 모두 배제하였다. 또한 제목도 원제목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게 변경하였다. 전문가에게 이런 변화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한 배려라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야기 선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으면 하는 점이다. 이 책은 크게 6부로 나뉘었다. 이 중 5부와 6부는 귀신과 신선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5,6부에 실린 이야기는 다른 어떤 야담집에서 볼 수 없는 흥미와 감동을 준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배제하기가 어려웠을 법도 하다. 하지만 표제를 '귀신과 신선'에 한정하였다면, 차라리 이들 대신에 흥미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동일한 유형의 이야기를 실는 것이 옳지 않았겠는가 한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책에 굳이 한문 원문을 부록으로 붙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교감이나 번역은 잘해봐야 본전이라는 말을 듣는다. 공은 공대로 들었지만, 한두 가지 실수가 있다면 그 책은 가혹하리만큼 냉혹한 비판을 받기 일쑤다. 그 때문에 번역을 회피하는 연구자도 적지 않다. 이 한계를 알면서도 정환국 선생은 《천예록》을 교감하고 번역하였다. 독자는 쉽게 읽으며 비판할 수 있지만, 역자는 한글자 때문에 며칠 동안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번역은 그만큼 품을 많이 들고, 짜증나는 작업이다. 그런데도 이 일을 한 이유는 선인들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다수가 읽고 접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리라.

정환국 선생의 《천예록》을 읽다보면 17,18세기 우리 선인들이 살아온 가치관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환타지가 유행하는 이때에 한번쯤은 우리 선인들이 가졌던 귀신과 신선을 만나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유진**